
 대한민국정부		보 도 자 료		 
		배포 일시	2021. 8. 26.(목) 총 14매(본문 6, 참고 8)	
담당부서	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조정과 (회의)	담 당 자	• 과장 장병주, 서기관 조미아 • ☎ (044) 202-6740, 6741	
	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초조정과 (안전①)	담 당 자	• 과장 조현숙, 사무관 진수민 • ☎ (044) 202-6860, 6861	
	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 정책과 (안전②)	담 당 자	• 과장 김인경, 사무관 안장현 • ☎ (044) 200-6220, 6221	
보 도 일 시		2021년 8월 27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통신·방송·인터넷은 8월 26일(목) 15:00 이후 보도 가능		

제19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

- 혁신기술 확보와 융복합 생태계 구축을 위한 뇌 연구개발 투자전략 마련 -
“분야 간 융복합과 산·학·연·병 연계를 통한 혁신기술 확보, 인프라 구축, 뇌산업 융복합 생태계 구축 지원 등”
- 탄소중립, 한국형뉴딜 지원을 위한 해양수산 5대 기술혁신 전략 마련 -
“해양수산 분야 탄소중립 실현, 해양수산 산업의 디지털화, 해양수산 신산업 성장 생태계 지원 등”

-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(이하 ‘과기정통부’) 장관이 주재하는 제19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(이하 ‘장관회의’)가 8월 26일(목) 14시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간 이원 영상회의로 개최되었다.
- 이날 장관회의에서는 「뇌 연구개발 투자전략」을 토론안건으로 「해양수산 5대 기술혁신 전략」을 보고안건으로 상정·논의하였다.
- 특히, 이번 회의에서는 삶의 질을 제고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핵심 분야인 뇌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고도화 전략을 발표하였다.

- 또한, 해양수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탄소중립 실현을 가속화하고 해양수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해양수산 5대 기술 혁신전략도 발표하였다.

1 뇌 연구개발 투자전략(안)

- ◇ 퍼스트무버 도약을 위한 **뇌연구 혁신기술 확보**
- ◇ 연구·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**융복합 혁신생태계 구축**
- ◇ 뇌연구 자원관리 고도화 및 산업 육성·지원을 위한 **R&D 투자전략성 강화**

- 최근 글로벌 뇌 연구산업은 성장 추세이며, 뇌 연구는 혁신적인 뇌 관측 기술의 개발, 인공지능 등 타 분야와의 융합을 기반으로 인간 뇌기능에 대한 근원적 이해와 뇌-기계 인터페이스 등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.

※ 글로벌 뇌 산업 시장 전망 : 2019년 127조원 → 2027년 207조원

- 이에,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, 뇌 연구의 다양한 잠재력을 극대화하고, 국내 뇌 연구·산업 생태계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뇌 연구개발 투자전략을 수립하게 되었다.
- 융합과 협업 중심의 뇌 연구개발 체계 마련을 목표로, ①분야별 핵심기술 중점투자, ②도전적 연구프로그램 추진, ③뇌 연구·산업 생태계 조성, ④R&D 투자의 전략성 강화 등 4대 중점전략을 설정하였다.
- 첫 번째, 분야별 핵심기술에 중점 투자한다.
 - 정부는 뇌기능, 뇌질환, 뇌공학 등 뇌 연구 세부분야별로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,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임상 연계 및 사업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.
 - 또한, 뇌질환 극복을 위해 질환유형별 혁신적인 치료기술과 차세대 플랫폼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하고, 전자·IT 등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 및 뇌 작동원리의 근원적 이해를 위한 연구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.

□ 두 번째, 도전적 연구프로그램을 추진한다.

- 뇌기능 이해 고도화와 뇌질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, 뇌지도 구축을 지속 추진하고, 영장류 연구기반을 확충하는 한편, 관련 국제협력 지원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.
- 또한, 최근 부상하고 있는 뇌-기계 인터페이스(BMI*) 등 융합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강화를 통해 장애·뇌질환 환자의 재활·치료기술 개발 및 뇌 연구 장비, ICT 융합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.

* BMI : Brain-Machine Interface

□ 세 번째, 뇌 연구·산업생태계를 조성한다.

- 산재되어 있는 뇌 연구데이터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 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, 한국뇌은행의 뇌조직, 혈액, 척수액 등 각종 자원의 확보, 관리, 분양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.
- 또한, 뇌 관련 기술(Brain-Tech)의 실용화,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화 유망기술 발굴 및 실증 지원, 기업수요 발굴 및 산·학·연·병 공동프로젝트 추진,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뇌 분야의 스타트업 및 중소·중견기업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.

□ 네 번째, 뇌 연구개발 투자의 전략성을 강화한다.

- 투자공백 해소 및 뇌 분야의 전략적 투자를 위해 정부 연구개발 사업 체계를 고도화하고, 대형 민관협업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혁신 기술 확보 및 민간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.
- 또한, 융복합 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, 범부처 뇌연구개발 협의체 등 연구주체 간 협업을 촉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.

2 해양수산 5대 기술혁신 전략(안)

- ◇ 기후변화 적응력을 높이고 해양수산업 디지털화 및 신시장 개척을 지원할 기술혁신 전략 수립
- ◇ 탄소감축원 발굴, 친환경선박 전환, 해산물류 최적화, 수산·양식업 고도화 등 추진

□ 코로나19 이후, 전략기술 분야 선점을 위한 경쟁 심화 및 미국 행정부 교체 이후 환경·위생검역 등에 대한 국제규제 강화 전망에 따라, 주요 국가들은 기술혁신을 통한 신시장 개척의 돌파구로 해양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.

- 항만시설 자동화를 통한 물류 최적화, 해양환경 규제에 대응한 친환경선박 개발 및 양식업의 디지털 전환 등을 추진 중으로, 이러한 국제 정책 동향을 반영하여 해양수산 분야에 특화된 핵심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'해양수산 5대 기술혁신 전략'을 수립하였다.

□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.

- 첫 번째, 파력·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해수를 활용한 수소 생산부터 항만에서의 활용, 발생한 탄소의 저장까지 단계별 기술 개발을 통해 탄소중립 해양공간을 구현한다.
 - 또한, 탄소저감 산업소재, 생분해성 어구 등과 같은 플라스틱 대체소재 등 해양 신소재를 개발하여 해양 환경을 개선한다.
- 두 번째, 자동화·지능화된 디지털 항만과 친환경 설비를 기반으로 하는 '스마트 포트'를 조성하여 최소한의 인력으로 24시간 물류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친환경 선박과 연료의 적·하역도 지원할 계획이다.
 - 또한, 항만 내 기술혁신에 그치지 않고 해상-육상의 물류정보를 연계하여 수출입물류를 최적화하고 항만 생산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.

○ 세 번째, 선박 기관과 설비를 자동화하고 안전한 항만 입·출항을 지원하는 육상연계 기술을 개발하여 자율운항선박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고 한국형 친환경선박을 단계별로 개발하는 한편, 개발된 자율운항·친환경 선박의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상 테스트 베드와 인증 등 표준 인프라를 구축한다.

- 이를 통해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율운항·친환경 선박 국제시장을 선점하는 한편,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존 유류선박 대비 40만 톤 이상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○ 네 번째, 인공지능(AI) 등 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어업관리로 데이터에 기반한 자원관리를 지원하고, 양식시스템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형 수산식품 스마트 가공공장, 유통 콜드체인 구축 등을 통해 수산업 밸류체인을 조성한다.

- 이를 통해, 수산식품 시장 성장과 수산물 수출 확대를 견인하는 한편, 국내 수산 먹거리의 위생과 안전도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.

○ 마지막으로, 앞선 핵심 기술개발 분야에서 기업 주도의 산업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초기 기술개발부터 창업·사업화, 투자유치·성장까지 기업 성장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.

- 특히, 새로 개발된 해양수산 국산 기술의 인증·표준화를 지원하고, 우수 민간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, 관련 분야 전문인재 양성과 민-관 협력 기반도 다질 계획이다.

□ 이번 기술혁신 전략은 향후 해양수산 분야 정부 연구개발(R&D) 사업 기획 및 연구 추진의 기본 방향으로 활용될 예정으로, 해양수산 산업 현장의 스마트·친환경 기술 적용을 통한 한국형 뉴딜 및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-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(부의장)은 “최근 뇌 분야 자체의 급속한 발전은 물론, 인공지능, 로봇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하면서, 많은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진보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.”라며, “이번 투자전략이 국내 뇌 연구·산업을 획기적으로 도약시키는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.”라고 하였다.
- 아울러, “탄소중립, 디지털 전환 등 국제 동향에 부합하는 신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국제 규범 관련성이 높은 해양수산 분야의 기술 혁신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번 전략의 차질없는 이행 및 새로운 사업 발굴을 위한 민·관 협력을 당부드린다.”라고 밝혔다.
-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“오늘 발표한 전략은 해양수산업의 디지털화 및 친환경화를 촉진하고 신산업 시장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, 민간의 연구개발(R&D) 투자역량을 키우면서 민간 중심의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기업 성장주기별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.”라고 언급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조정과 조미아 서기관(☎ 044-202-6761),
 (1호)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초조정과 진수민 사무관(☎ 044-202-6861),
 (2호)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안장현 사무관(☎ 044-200-6221)

제19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

2021. 8. 26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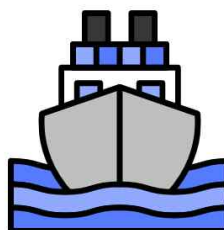


제 19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는

고령화 시대에 국민 삶의 질 혁신과
뇌 융복합 산업 육성을 위한 **뇌 연구개발 투자전략**과
무한한 미래 가능성이 잠재된 **해양수산 분야**의
주도권 선점을 위한 **5대 기술혁신 전략**을
논의·확정하였습니다.



**뇌 연구개발
투자전략**



**해양수산 5대
기술혁신 전략**

뇌 연구개발 투자전략

뇌질환 극복과 뇌연구 융복합 기술 확산 기반 조성을 위한
뇌 연구개발 전략적 투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.

비전

뇌기능 규명을 통한 **뇌질환 극복**과 **융복합 기술 확산**

목표

- ✓ 퍼스트 무버 도약을 위한 **혁신 기술 확보**
- ✓ 연구·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**융복합 혁신생태계 구축**

융복합 연구생태계 구축

2021 ~ 2024

- 특화 뇌지도 2종 구축
- 중개 협력연구 기반 마련
- 혁신적 뇌연구 기법 개발

세계적 기술경쟁력 확보

2025 ~ 2030

- 특화 뇌지도 구축확대, 활용
- 뇌질환 진단치료 핵심기술개발 5건
- 글로벌 Top 융복합기술개발 5건

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!



1 분야별 핵심기술 중점투자

- ✓ 뇌질환 극복 연구 강화
- ✓ 다층적·통합적 뇌기능 연구 강화
- ✓ 타분야 융복합 혁신기술 개발



2 도전적 연구프로그램 추진

- ✓ 핵심 뇌 조기기술 확보를 위한 뇌지도* 구축
* 뇌의 구조·기능적 연결성을 보여주는 데이터
- ✓ 고위뇌기능(정서, 인지) 연구를 위한 영상류 연구 기반* 확대
* 영상류 질병모델, 국가 영상류 센터
- ✓ 뇌 융복합 기술 기반 신기술 사업화



3 뇌 연구·산업 생태계 조성

- ✓ 뇌연구 자원관리, 데이터 고도화 데이터 융합시스템 구축, 뇌은행 자원 활용, 장비공동활용
- ✓ 기술·창업 중심 뇌 산업 육성·지원








4 R&D 투자의 전략성 강화

- ✓ 산·학·연·병 협력체계 활성화
- ✓ 뇌 연구 자원체계 고도화 중장기 목표 중심 사업구조, 대형 민간 협업 과제선정 및 지원방식 유연성 제고



해양수산 5대 기술혁신 전략

해양수산 5대 기술혁신 전략 추진을 통해 해양수산 탄소중립 실현, 산업 디지털화, 신산업 시장 창출을 이뤄 나가겠습니다.

전략 1	탄소중립 오션뉴딜 촉진 - 에너지 생산-활용-탄소저장 전 단계 기술개발 - 해양바이오효를 활용한 해양환경 개선	
전략 2	해운·항만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- 스마트 포트로 국가항만 재도약 - 스마트 해운물류 기반 마련 - 국제 해양디지털 항로 구축·운영	
전략 3	디지털·그린 선박 전환 - 디지털·그린 선박 핵심기술 확보 - 신개념 선박 상용화 인프라 구축	
전략 4	스마트 수산 밸류체인 조성 - 스마트 기술도입을 통한 어업 혁신 - 환경친화적 스마트 양식 기반 구축 - 수산식품·유통 고차산업 육성	
전략 5	해양수산 신산업 생태계 조성 - 해양수산 기업 '기술개발-창업-성장' 지원 -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인프라 마련	

해양수산 기술혁신을 통해 이렇게 달라집니다!

해양수산 탄소중립 실현

온실가스 감축량

~ 2026
55만톤 이상 

친환경선박 전환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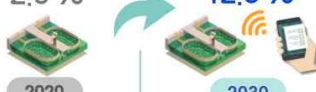
2020 1% → 2030 15%

해양수산 산업 디지털화

자율운항선박 기술 수준

Lv. 1 → Lv. 4
2020 → 2030 

스마트양식 전환율

2.5% → 12.5%
2020 → 2030 

해양수산 신산업 시장 성장

시장 규모

5.2 조 원 → 11.3 조 원
2022 → 2030 

기술 수준

2016 80% → 2030 90% 

[1호] 뇌 연구개발 투자전략(안)

□ 추진배경

- 뇌는 삶의 질을 혁신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핵심 분야로 주요국과 글로벌 기업들의 차세대 시장 선점 경쟁이 진행 중
 - ※ 글로벌 뇌 산업 시장 전망 : 2019년 127조원 → 2027년 207조원
- 뇌 작동원리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인공지능 및 생명공학, 로봇공학 등 미래 뇌 융합·지능화 기술과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파급력이 매우 큰 분야
 - ※ 세계경제포럼·MIT('16~'20), 중국 7대 첨단기술개발계획('21) 등에서 주요혁신기술로 선정

□ 국내외 현황진단

- (해외) 선진국은 뇌연구 주도권 선점을 위해 대형 뇌연구 플래그십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, 대부분의 사업들이 고도화 단계에 돌입
 - ※ (미국) 인간 뇌신경회로망(뇌지도) 작성 및 혁신적 뉴로톨 개발, (일본) 영장류 대상 연구 및 정신신경질환 극복연구, (유럽) 인간 뇌 시뮬레이션 연구 및 ICT 융합 플랫폼 기술개발
 - 혁신적인 뇌 관측기술 개발과 통합적 융합연구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, 뉴로텍(Neurotechnology) 중심의 뇌 산업이 급속히 성장 중
- (국내) '98년 뇌연구촉진법 제정 이후, 3차에 걸친 뇌연구 촉진 기본계획 수립 등 지속적인 R&D 투자 (2019년 2,156억원)
 - 기초연구역량은 크게 향상되었으나, 산업적 성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하고, 다양한 기술 융합 흐름에 대응 부족
 - ※ 지난 10년('10~'19)간 전체 뇌 연구 투자의 79%를 기초연구에 투자

☞ 뇌의 산업적 활용 강화 등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, 뇌 연구/융복합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내 뇌 연구·산업 생태계 확충을 지원

□ 추진전략

비전 뇌기능 규명을 통한 뇌질환 극복과 융복합 기술 확산

- 목표**
- ◆ 퍼스트무버 도약을 위한 **혁신 기술 확보**
 - ◆ 연구·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**융복합 혁신생태계 구축**

[24] 융복합 연구생태계 구축

[30] 세계적 기술 경쟁력 확보

전략 1 분야별 핵심기술 중점투자

- (뇌질환 극복 연구 강화) 뇌질환 유형별 중점기술 개발 및 기초-임상 연계 강화, 전자약·디지털치료제 등 차세대 혁신기술 개발
- (다층적·통합적 뇌연구) 분자·세포-신경회로-고위뇌기능 수준별 중점 기술 개발 및 다층적 통합연구 지원 강화
- (융복합 혁신기술 개발) 뇌 작동원리 기반의 IT 기술을 접목하여 혁신적인 뇌융합 원천기술 확보

전략 2 도전적 연구프로그램 추진

- (뇌지도 구축) 국내 개발 뇌지도 데이터의 종합·분석·제공 시스템 구축, 특화뇌지도(전전두피질, 기저핵) 고도화 및 관련 글로벌 협력확대
- (영장류 연구기반 확대) 주요 뇌질환에 대한 영장류 질병모델 개발 및 관련 지원 인프라 강화
- (융복합 연구 촉진) 단기 실용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기업과 연계·개발하여 뉴로테크 산업기반 조성 및 신시장 창출

전략 3 뇌 연구·산업 생태계 조성

- (자원 및 데이터 고도화) 뇌 연구데이터의 수집·축적, 가공, 활용을 위한 통합인프라 구축 및 각종 뇌 연구 자원 확보·관리, 분양 체계 고도화
- (기술·창업 촉진) 뇌 분야의 스타트업 및 중소·중견기업 지원을 강화하여 뇌 관련 기술의 실용화 촉진

전략 4 R&D 투자의 전략성 강화

- (협력체계 활성화) 타 분야 융합연구와 산·학·연·병 연구주체간 협력을 촉진하여 연구성과의 가치 및 활용도 제고
- (뇌연구 지원체계 고도화) 정부 연구개발사업 체계 고도화 및 대형 민관협업 프로젝트 발굴 지원

□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

- 전략적 R&D 투자를 통해 그동안 축적한 기초연구 역량을 실질적 성과로 연결하고, 태동기 수준인 국내 뇌 산업 생태계의 육성
- 부처별 역할분담 및 협업을 통해 추진과제별 실행계획 마련 및 신규사업 발굴

[2호] 해양수산 5대 기술혁신 전략(안)

□ 추진배경

- **(국제환경)** 코로나 이후 디지털 전환 등 주요 정책 방향 및 美 행정부 교체 이후 환경 등 규제강화 전망에 대응, **해양분야 투자도 확대** 추세
 - * 美 해양대기청(NOAA)은 **Blue Economy** 가치를 '30년까지 2배로 높이기 위해 **해운, 해양조사, 수산, 해양·연안 복원력, 해양관광** 분야 성장전략 수립('21.1)
- **(국내대응)** 한국판 뉴딜('20.7)·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('21.3)에 해양수산 과제를 반영·추진 중이나 관련 기술혁신을 위한 투자와 R&D는 미흡
 - * 스마트 해산물류 SOC 확충, 수산물 양식·유통 혁신 및 CCS 실증, 해양 탄소흡수원 발굴 등
 - ** 해양수산업기업은 대부분 영세(4인 이하 사업체가 82.1%)하여 민간 R&D 투자 여력은 미비, 국가 R&D 투자를 확대중이나 분야별 정책계획간 연계 및 최근 국제환경 변화 반영 미흡

→ 최근 정책 환경 변화 반영 및 해양수산 분야별 연계를 위한 핵심 기술개발 전략을 마련하고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

□ 5대 추진 전략(Korea Blue Technology Strategy)



① 해양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탄소중립 오션뉴딜 촉진

- **(수소생산-활용)** 파력·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해수를 활용한 수소 생산시스템('22~) 및 수소병커링 기술 등을 적용한 수소항만 구축('23~)
- **(탄소 저장)**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해안선 복원을 통해 기후 변화 적응력을 높이고 탄소흡수량을 산정하여 **新 탄소감축원*** 발굴('22~)
 - * 갯벌 염습지, 잘피림, 바다숲 조성 등을 통해 '26년까지 탄소 55만톤 흡수 가능 전망
- **(해양바이오 신소재)** 생분해성 어구 등 플라스틱 대체소재, 탄소 저감 산업소재 등을 개발('22~) 하고 수산부산물* 등 원천소재 다양화 추진
 - * 「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정('21.7)으로 굴패각 등 부산물의 고부가 소재화 가능

②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해운·항만 디지털클러스터 구축

- (Smart Port) 안벽-이송-야드 전 영역의 단계적 자동화 및 항만자원 관리 지능화를 통해 최소 인력으로 24시간 운영되는 미래형 항만 구축
 - * 항만 내 인접 '컨' 터미널 간 환적화물 자동이송 레일시스템 등 탄소배출 최소화 설비 개발('22~)
- (물류 최적화) 해상-항만-육상 물류 Data를 연계하여 수출입 물류 및 항만생산성을 최적화하고 ^{positioning, Navigation, Timing}측위 정보(PNT) 정밀화 추진('22~)
 - * 스마트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-공급자(End-to-End)를 최소 비용·최적 운송으로 연결

③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디지털·그린선박 전환

- (자율운항선박) 자율운항 지능화, 안전한 항만 입·출항을 지원하는 육상 연계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운항 효율 극대화
- (친환경선박) 한국형 친환경선박의 단계별 개발*을 통해 '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존 유류선박 대비 40만톤 이상 저감
 - * ①LNG 등 핵심부품 국산화, ②혼합 이중 연료 엔진개발, ③수소 등 무탄소 엔진 개발

④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수산업 밸류체인 조성

- (차세대 양식) 육안 관측과 경험에 의존해 온 양식산업의 전 공정을 디지털 기반으로 단계적* 전환하여 양식 공정의 통합 자동 제어 구현
 - * ①자동화 기자재 개발보급, ②데이터 기반 제어, ③종자·사료·백신·기자재 통합 개발
- (수산식품 고도화) AI 등 첨단기술을 융·복합한 수산 가공 전자동화, 자율인지형 공정 제어 기술 등을 통해 맞춤형 수산식품을 최적 생산

⑤ 산업 육성을 위한 해양수산 신산업 생태계 조성

- (산학연 협력) 기업이 주도하는 자유공모형 R&D 등을 지속 확대하고 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협력센터* 및 인프라 공동활용 체계 구축
 - * 창업기업 보육, 공동작업 공간 제공 등 원스톱 벤처혁신공간으로 활용
- (육성 인프라) 5대 전략분야 시장 성장을 위해 정부 차원의 신기술 인증 및 구매를 확대하고 핵심 기자재 국산화 및 표준화 지원

- ☐ **일시** : 2021. 8. 26.(목) 14:00 ~ 15:00
- ☐ **장소** : 서울 - 세종청사 영상회의
- ☐ **참석대상** : 과기정통부 장관(주재), R&D/안전 관련 부처 장관 등
- ☐ **상정 후보안건(안)**

연번	안건명 및 주요 내용	관계부처
1 (토론)	뇌 연구개발 투자전략(안) / 공개	과기정통부, 보건복지부, 산업부, 식약처, 질병청 등
2 (보고)	해양수산 5대 기술혁신 전략(안) / 공개	해수부, 과기정통부, 산업부, 환경부, 국토부, 농진청 등

- ☐ **회의 진행계획(안)**

시 간	주요 내용	비 고
14:00 ~ 14:05 (5분)	■ 개회 및 모두발언	과기정통부 장관
14:05 ~ 14:55 (50분)	① 1호 안건 발표, 민간전문가 발제 및 토론(30') ② 2호 안건 발표 및 토론(20')	안건별 발표 및 관계부처 논의
14:55 ~ 15:00 (5분)	■ 마무리 및 폐회	과기정통부 장관

※ 회의 진행상황에 따라 순서별 배정시간은 변동 가능